

石油價格은 경쟁력을 상실했는가

이상한 價格의 交錯

석유위기가 발생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에너지需要, 특히 石油수요가 높은 수준에 있거나, 증가추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두번째는 경제적 조건 이외의 조건, 다시 말해 정치적·군사적 조건에 의해 石油공급의 상당 부분이 저해 받는 상황의 발생이다. 이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석유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과거 10년간 두차례의 경험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여기서 관심사는 제 3차 석유위기가 과연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위의 두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의 確率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수요, 특히 石油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 보이지 않으며, 그밖에 페르시아灣, 특히 호르무즈海峽의 봉쇄 등 여러가지 불안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石油공급이 대폭 감소 또는 저해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들 두가지 조건 가운데서 제 1의 조건, 즉 앞으로 石油수요가 증대될 것인가, 아니면 停滯를 계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장래예측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제 2의 조건, 다시 말해 經濟外的 조건에 의해 石油공급이 저해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우연적 변수가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예측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實例로서 이란—이라크戰爭의 向後 추이를 생각해 보면, 호르무즈海峽이 완전히 봉쇄되고, 이에 따라 페르시아灣으로부터의 石油공급이 단절 또는 대폭 감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確率의 문제로서 現時點에서 예측할 때, 確率이 낮을지 몰라도 호르무즈海峽봉쇄라는 사태가 현실적으로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혹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石油수요가 停滯상태에 있다면 공급제약이 나타나도 그것이 제 3차 석유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石油수요의 停滯는 도대체 어떤 요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石油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어 石油가 다른 에너지에 대한 價格競爭力을 상실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다.

1973년 제 1차 석유위기, 그리고 1979년 제 2차 석유위기, 이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통하여 石油가격은 전에 비해 13배나 상승하였다. 그 결과 石油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 두차례에 걸친 대폭적 價格인상, 제 1차 석유위기에서 石油가격은 4배나 오르고, 제 2차 석유위기로 이것이 다시 2.5배 상승, 合計 13배가 올랐는데 이 두차례의 대폭 인상 중에서도 특히 제 2차 석유위기 때의 약 3배 인상은 石油價格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가격인상에 의

해 石油은 일반물가, 그리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 너무 높은 가격으로 오른 것이다. 결국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자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1980-83년에 이르는 4년간, 世界石油소비는 해마다 감소를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石油수요의 감소는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로는, 石油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의하여 세계경제가 不況에 빠져들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世界不況의 결과로써 에너지소비, 특히 가격경쟁력을 잃은 石油소비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로는, 石油가 다른 에너지, 예를 들어 石炭, 天然가스, 原子力 등에 비하여 비싸졌기 때문에 에너지소비 전체규모에 대한 상대적 占有比率이 낮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石油소비의 감소와 이와 관련된 石油가격의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보면 이것이 매우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80년, 이해는 아직 第2次 석유위기의 영향이 계속되던 해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계의 石油 소비는 감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石油가격은 이에 반하여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다. 1981년이 되어 石油 소비는 더욱 감소되면서 石油가격은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복잡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먼저 OPEC 회원국의 石油가격의 평균은 이미 1981년 봄에 피크에 달했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OPEC에 基準原油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가격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다. 그리고 그후 基準原油價格은 인상을 거듭하여 1981년 10월에는 배럴당 34달러라는 최고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 시점에 이미 OPEC 石油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OPEC 石油의 평균가격은 그해 3월에 피크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하락을 계속하게 된다. 결국 OPEC 石油 평균가격이 저하되어가는 과정에서 基準原油價格은 거꾸로 상승하여 최고수준까지 갔다는 「이상한 價格의 交錯」가 나타난 것이다.

타당한 石油價格은 ?

이러한 이상한 가격의 交錯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前段階인 OPEC 石油가격 Frog jump 現狀

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1979년부터 80년에 걸친 石油가격 상승과정에서 몇차례 Frog jump 현상이 있었다. Frog jump 현상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먼저 OPEC 石油의 평균가격이 상승한다. 이를 뒤쫓는 형태로 基準原油(아라비안 라이트)의 가격이 오른다. 基準原油價格은 본래는 OPEC 石油의 평균가격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뒤쫓아가는 형태로 제자리를 찾은 것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기준가격이 이와같이 인상되면 이것이 다시 連鎖現象을 불러 일으켜 OPEC 평균가격은 다시 상승의 현상을 나타낸다. 이 평균가격에 맞추어 基準原油價格이 다시 인상되면 여기서 다시 Frog jump 현상이 나타나 OPEC 평균가격이 다시 오르고, 이러한 Frog jump의 연속에 의해 OPEC 石油의 평균가격도 基準原油價格도 상승을 계속해 간 것이다. 이런 連鎖作用이 끝난 것은 1981년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결국 OPEC 石油의 평균가격이 피크를 넘어서 겨우 하강기류를 타게 된 단계에서 Frog jump 현상이 끝나고 그 후에는 基準原油價格이 인상되더라도 Frog jump 현상을 유발하는 일은 없어졌다.

1980년부터 실제로 世界石油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rog jump 현상이 끝나고 基準原油價格의 인상이 OPEC 평균가격의 상승을 뒤따르는 형태로 겨우 兩者가 일치하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현실적 석유수급의 상황과 이와 같은 가격변동과의 관계에서 1년반 이상의 時差가 생겼다는 것은 石油라는 「특수한 商品」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第2次 석유위기로부터 최근까지의 石油 수급과 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 두가지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 첫째는, 石油가 특수한 상품이라고는 해도 결국은 마켓트·메커니즘, 또는 가격메커니즘 影響力下에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價格메커니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世界石油市場은 반드시 自由競爭 조건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供給寡占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켓트·메커니즘 또는 價格메커니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뒤늦게, 다시 말해 타임·래그 현상을 보이며 나타난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까지의 경험에 의해 확실히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 타임·레그가 경과한 이후의 石油市場 형태는 石油價格에 명백한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 중반 즉, 基準原油가격이 피크에 도달했던 이후부터 그 다음 해인 1982년에 걸쳐 世界石油市場은 완화되기 시작해 石油價格은 실질적 하락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 기간에 확실히 OPEC 基準原油價格은 인상되지 않은 채 배럴당 34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상황은 일부 產油國에서는 이미 公式販賣價格(GSP)이 하향 수정 되었으며, 또 GSP가 수정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石油의 實勢價格이 실질적으로 하향수정 되었다.

「石油수출국政策檢討그룹」이라는 전문가집단이 있다. 이 그룹은 OPEC의 내부 또는 OPEC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石油전문가들의 모임으로서 OPEC의 정책수립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 그룹이 1982년말 작성한 보고서 「1983년 石油價格: 중대한 해」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1982년을 통해 국제석유 시장에서는 6 종류의 디스카운트가 횡행해 이것이 石油實勢價格을 인하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섯 종류의 가격인하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유전스 기간의 연장등이 있다. 石油수출에는 통상 약 1개월의 유전스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수급이 완화된 상황에서 石油輸出國側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전스 기간을 1~2개월 연장시키는 事例가 자주 나타났다. 유전스 기간이 연장되면 石油輸入者는 Shiper's Usance에 이어지는 Dollar Usance 기간을 그 만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Dollar Usance의 金利가 경감된다. 이에 따라 石油輸出價格은 실질적으로 인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밖에 예를 들어 原油에 끼워 파는 형태로 다른 상품, 예를 들어 NGL의 가격을 대폭 인하시켜 原油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해 준다면 또 市況과는 관계없는 이유, 다시 말해 경제협력 이라든가 善隣諸國의 원조라는 형태로 石油가격을 인하해 주는 사례, 또는 石油輸入國과의 무역관계에 의해 바터거레 決濟의 형식으로 石油輸出價格을 실질적으로 인하한다면가 그 밖에 여러가지 형태로 할

인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같은 형태로 石油의 實勢價格은 1982년 기 간중 하락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實勢價格 하락을 追認하는 형태로 1983년 봄 OPEC 런던總會의 결정으로 基準原油價格을 5달러 인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基準原油價格의 5달러 인하 즉, 배럴당 29달러로의 인하도 OPEC내부 力學關係의 타협의 產物이지 石油가격의 실질적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비싼 가격수준이라는 評價者들도 적지 않았다.

만약 OPEC가 石油가격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원칙에 철저했다면 몇달러인가 더 인하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관측이기도 했다.

타당한 石油價格

그렇다면 石油가격은 1 배럴에 얼마라면 타당한 것일까?

石油의 적정 가격수준을 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확일적으로, 그것도 간단하게 石油 適正價格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의 現實石油價格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것을 어떤 가격인상의 Formula로 적용, 유추 해석한 결과의 가격수준을 想定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위 石油價格인상의 이론적 수준을 想定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試算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1960년 石油價格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것을 일정한 計算式에 의해 최근까지 연장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74년 基準原油價格을 출발점으로 하여 똑같은 計算式을 최근까지 연장시키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케이스로, 왜 1960년을 기준년도로 잡았는가 하면 바로 이 해에 OPEC가 결성되어 발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해는 OPEC 결성의 최대 이유였던 石油가격의 실질적 하락경향이 일반화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메이저와 OPEC와의 力學關係에 있어서 메이저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으며 싼 가격때문에 石油수요의 확대가 계속 진행되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리

고 OPEC은 이와같은 정세에 대항하여 產油國으로서의 자원의 保存, 石油收入의 증가를 기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OPEC을 결성한 것이다.

또 하나의 케이스, 즉 1974년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에 의해 石油가격이 4 배나 오른 바로 다음해이다. 다시 말해 제1차 석유위기의 石油가격 4 배 인상을 일단 既定事實化하고 그 후의 상태에서부터 최근까지의 동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년도로 잡은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케이스를 통하여 石油價格 인상의 소위 理論值를 계산하는 計算式으로서 採用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OPEC의 長期戰略委員會가 1979년 즉, 제2차 석유위기 渦中에서 작성한 「長期石油價格戰略」 草案에서 채택한 石油價格 인상의 Formula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를 통하여 世界石油市場을 Seller's Market로 변모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石油가격의 장기적·지속적 인상을 노려온 OPEC은 1979년 長期戰略委員會가 작성한 長期石油價格戰略 草案을 이해 10월로 예정되었던 OPEC 首腦會議에 제안, 결정을 불 계획이었다.

OPEC은 1960년에 결성된 것이기 때문에 1980년은 바로 창립 20주년에 해당된다. 이 20주년을 기념하여, 더우기 20년간 크게 변화한 世界石油需給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OPEC 頂上會談에서 이 長期價格戰略을 채택·실시할 예정이었지만,幸运的 不幸인지 그 직전에 발생한 이란·이라크 戰爭에 의해 OPEC 頂上會談은 유산되었으며, 장기가격전락도 그대로 死藏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의 커다란 石油需給狀況의 변동에 의해 이 장기간전락도 수정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현재 長期戰略委員會에서 검토가 재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오래된 長期價格戰略 시나리오를 用例로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현실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인상폭을 想定해 놓았던 이 長期戰略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가격인상 理論值를 산출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石油價 인상의 일종의 상한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現價格도 비싼편?

이 長期石油價格戰略의 시나리오는 3개의 이론적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기둥은 石油가격과 일반물가와와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 石油의 실질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물가 상승에 비례하여 石油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產油國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石油가격과 연동시켜야 한다는 물가의 상승폭 기준이 구체적으로는 선진공업국의 工業品輸出物價指數와 소비자물가지수와의 평균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先進工業國으로부터 OPEC제국에 대한 기술수출 對價의 지수와 거의 같다는 논리이다.

두번째 기둥은 石油의 실질가격을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인상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石油의 실질가격 상승률은 先進工業諸國의 실질경제성장률에 링크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점에 관하여서는 왜 先進工業諸國 즉, 세계 主要石油소비국의 실질경제성장률과 링크시켜 石油의 실질가격이 연상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 이론적 타당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마 OPEC의 사고방식으로는 세계주요소비국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한은 아직 石油가격의 상승을 흡수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커다란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세번째는 美國의 달러와 여타 주요국 通貨 사이의 價値均衡문제이다. 현재 달러가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그 당시 달러는 弱勢에 있었다. 더우기 石油가격은 달러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달러 弱勢分 만큼 石油가격은 產油國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OPEC은 달러표시 油價를 타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와 다른 主要國通貨의 평균과의 價値較差에 대응하여 石油가격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이 세가지 조건중에서 제3의 달러價値問題는 그 후 달러對 他國通貨의 상황이 변동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변동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기로 하고 제1과 제2의 조건만을 다루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 두가지 조건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앞에서 말한 두가지 케이스, 다시 말해 제1의 케이스

스는 OPEC가 발족한 1960년의 石油가격을 출발점으로 한 것과, 제 2의 케이스, 제 1차 석유위기 후인 1974년의 石油가격을 출발점으로 한 것 각각에 동일한 計算式을 적용, 최근의 石油價格을 계산해 보았다.

그 結果는 제 1의 케이스의 理論値는 1983년에도 배럴당 10달러 強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현재의 배럴당 29달러의 가격수준과 비교해서 1/3 가깝게 낮은 수준이 理論値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 2의 케이스, 다시 말해 1974년 基準原油價를 출발점으로 하여 계산해 보면, 1983년의 理論値는 배럴당 27달러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을 출발점으로 하여 계산한 油價理論値가 현재의 가격에 비해 크게 못미친다는 점을 일단 論外로 하고라도 1973~74년 제 1차 석유위기 당시의 油價 4 배인상을 일단 기정사실로 하고 1974년부터의 가격인상 理論値를 계산하여도 배럴당 27달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基準原油價格이 배럴당 34달러이었던 시기는 물론이고, 현재의 29달러 수준도 아직 비싼 상태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주목해야 할 價格構造

또 한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이것은 과거의 경위로부터 계산해 내는 방법이 아니고 현재의 수준에서 石油와 다른 에너지, 다시 말해 石油와 경합관계에 있는 에너지와의 價格相對關係를 검토하여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發電用燃料로서의 石油와 石炭과의 價格差, 소위 油炭隔差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하여 보았다.

구체적 계산과정을 생략하고 石炭을 發電用燃料로 사용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코스트 상승요인, 예를 들어 環境對策을 위한 코스트 등을 계산에 넣어도 현재의 石油價格은 확실히 비싸다는 결론은

로, 石炭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油價는 배럴당 23달러 전후까지 저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計算上의 해답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經緯를 통해 살펴 보아도, 또 현시점에서 여타 에너지와의 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보아도 배럴당 23~27달러 정도가 適正價格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배럴당 29달러 現行價格 수준은 확실히 비싼 것이며 따라서 경쟁력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사실은 世界景氣가 회복세에 접어든 현재에 있어서도 石油수요는 반드시 이와 비례하여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태까지 계속되어온 石油소비의 감소는 바닥까지 내려와 이제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로 접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世界經濟의 회복과 石油消費 회복과의 관계는 여전히 언밸런스이다.

결국 石油소비의 所得彈性値는 마이너스로부터 플러스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아마 앞으로의 전망으로서는 石油가격의 상대적 高價現象이 수정될 때까지는 石油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石油의 價格競爭力이 회복되는 시기는 아마 현재의 基準原油가격이 더욱 하향수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만약 基準原油價格이 약간 하향수정된다면 보다 빠른 시기에 石油가격의 경쟁력이 되살아날 것이다.

금후 國際石油市場은 이와 같은 石油가격의 相對價格문제를 둘러싸고 꽤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石油소비국의 景氣와 기후, 기온등의 순환적 또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하여 市況변동에 一喜一悲하지 않고 우리가 世界石油市場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보다 구조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피는 방법뿐일 것이다. *

(주간석유뉴스)

너와나의 식량절약 이룩되는 식량자금